



백자 채색 연꽃무늬 접시

'아시아도자문화실'이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 내 신설
국내의 도자 1150점 전시
도자문화관 건립 295억도 확보



청동사자모양 향로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병

도자문화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다. 장소성, 역사성, 자긍심이 깃들여 있는데다 국제적인 신안해저유물을 갖추고 있어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박물관)이 아시아도자문화실을 대표하는 국제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그동안 박물관은 지역 브랜드를 토대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을 아우르는 도자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박물관이 '아시아도자문화실'을 신설하고, 지난 18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아시아 도자 발달의 흐름과 신안해저문화사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의 도자 1150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 '빛나는 유약의 시대를 열다'는 신석기시대 토기부터 조선시대 백자까지 한국 도자에 초점을 맞췄다.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이어지는 한국 도자 흐름을 당시 사회 문화사와 연계해 보여준다. '차문화', '문인문화', '의례문화', '길상문화' 등 각기 주제에 따라 활용된 도자기를 전시한다. 또한 그릇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2부 '갑작스러운 침몰, 우연한 만남, 기적같은 부활'에서는 신안해저문화재를 살펴본다. 신안해저문화재는 지난 1975년 신안군 증도에

사는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 꽃병이 걸려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침몰선은 1323년 6월, 중국 경원(현재의 닝보)에서 일본 하카타로 가던 무역선이였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이루어진 수중 작업으로 2만 4000여 점의 문화재가 발굴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교역용 도자기, 금속기, 향나무 등을 비롯해 배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볼 수 있다.

아시아 각국의 도자를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3부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에서는 중국 도자, 베트남 도자, 일본 도자를 전시했다.

중국 도자는 한국에서 출토된 것을 위주로 전시하며, 고려와 조선시대 수입해 사용한 중국 도자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베트남 도자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장기 차용한 작품들로 베트남 도자의 발전 흐름을 대표하는 작품 위주로 선정했다. 일본 도자(사진전시)는 사가현립 규슈도자문화관 소장품 50점의 디지털 사진을 전시해 17세기 이후 일본 도자 발전 양상을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실

물을 차용해 전시할 예정이다.

4부 '도자기 속 과학'에서는 매곡동에서 채취한 흙(매곡토)으로 제작한 분청사기 관련 자료를 소개한다. 박물관은 실험 과정에서 확인된 매곡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점력이 좋은 흙을 혼합해 도자기를 제작했다. 아울러 광주 외에 전남 지역 도편을 분석해 토기에서 자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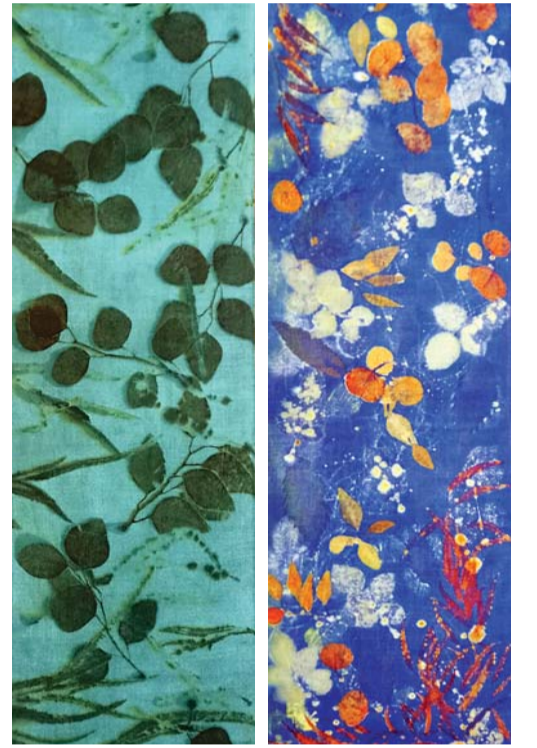
이밖에 박물관은 이번 아시아도자문화실 신설을 기념해 특별전 '6인의 시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명품 사진전'을 연장한다.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은 올해 '도자문화관' 건립 예산 295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설계 및 건립을 진행해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박물관 경내에 건립될 도자문화관은 아시아 도자문화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이정표가 될 핵심적인 사업이다.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안해저문화재를 비롯한 아시아의 도자 문화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교육하려는 취지다

이수미 박물관장은 "이번 아시아도자문화실 신설은 광주박물관의 미래와 그 방향을 예시하는 사실상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전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천연염색 '자연을 담다' 섬유공예 문숙영 '에코 프린팅' 전 30일까지 LH 휴광갤러리



'자연을 담다' 연작

천연염색 섬유공예작가 문숙영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LH 한국도주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LH 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자연을 담다-에코 프린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문 작가는 자연의 식물을 활용해 직물에 염색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에코 프린팅'은 염색한 원단이나 흰 원단에 무늬가 새겨진 식물의 잎과 꽃잎 등 자연물을 올려 놓고 돌돌 말아 증열 처리하면 색소가 추출되거나 다른 색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 일 모양 그대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다.

문 작가는 밤나무 잎, 떡갈나무 잎, 단풍잎, 은행잎, 장미잎, 플라타너스 잎, 유칼립투스 잎 등 자연 속에서 얻은 다양한 잎사귀들을 소재로 자연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작품 속에서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풍취가 그대로 느껴지며 은은하고 때론 바랜듯한 색감이 잔잔한 여운을 준다.

이번 전시가 세번째 개인전인 문 작가는 라온제나로 공방을 운영중이며 천연 염색 의류, 패션 소품, 생활문화상품, 제품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졸업작품전

서양화 전공, 23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큐레이터 전공, 21~24일 조선대 백학미술관



서양화 전공생들이 제작한 아트 콜라보 작품(부분)

예비 작가와 큐레이터들의 감각을 만날 수 있는 조선대 회화학부 서양화 전공과 문화콘텐츠학부 시각문화큐레이션 전공 졸업작품전이 잇따라 열린다.

서양화 전공 졸업작품전은 '환원과 확산'을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지역업체인 (주)소보제화의 협찬으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 전공자 19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전공을 살려 서양화 50여점, 설치·미디어 3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공동 작업으로, 여성 수제화를 캔버스 삼아 화려한 색과 선의 향연

을 펼친 아트 콜라보 작품이 눈길을 끈다.

21일부터 24일까지 조선대학교 백학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전공 학생들이 작가들과 짝을 이뤄 동시대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Four sights for now :네 시선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은 11명의 예비 큐레이터가 하승안·윤준영·남석우·양문기·김세진 등 15명의 작가를 초청해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재현했으며 'Phobia X 他者化', 'RE: VIEW', '非 yourself, Be yourself', 'Don't Forget'로 나눠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네 시선들' 전시작 '너는 아미'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